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영적 공감능력      성경: 요한복음 9장 24-41절

Tag:

24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9:24-4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당연히 부모의 죄다.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는 이미 십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저마다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원칙이다. 그러나 교리를 일상생활 중에서 각 개인의 형편에 대입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행태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병에 걸린 이유는 무슨 죄 때문일까? 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는 언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다만 개인적 이해관계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네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주게.

또는 식구와 형제와 교우관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들아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렴.

또는 시비가 붙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도 마찬가지다. 질문 자체가 악하다.

만약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불쌍하다, 얼마나 답답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구걸하고 있으니 몇푼이나마 적선해야겠다, 병에서 나왔으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등등의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렇다면 그 제자는 영적 공감능력이 좋은 자다. 그러나 의외로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교리적이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것이 왜 궁금할까? 왜 생활하는데 교리를 먼저 생각할까? 교리를 모르는게 낫다는 것이 아니다. 교리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한번 배우고, 한번 판단하였으면 그걸로 족하다. 매번 맹인을 대할때마다, 음 날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부모의 죄 때문이군, 살다가 20세 즈음에 실명을 하였으니 자신의 죄이군 하면서 살 것인가? 그에게 있어서 교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다. 교리의 편협성에서 벗어나셨기에 복음의 가능성으로 그 청년을 바라 보았다. 예수님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 하나였다. 그래야 저 맹인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죄와 저주는 끊어지고 소멸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다. 진흙에 침을 이겨 눈에 발라 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는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므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밤이 곧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습니다.(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낮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14에 우리를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 누구를 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무슨 행동을 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공감능력이라고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

사람들이 맹인 결인의 눈이 떠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는 예수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갔다. 바리새인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대뜸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선포하였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궁금해 해야 한다.

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라, 공인이요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에게는 은근히 완장맨으로서의 지휘통제 충동이 발동하였다. 만약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기 전에 자기에게 와서 상의를 했으면 혹시 고치라고 허락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의 언감생심일 뿐이다. 정말 그

됐다 해도 그는 여전히 안식일에는 안된다고 했을 것이다.

완장맨들은 무조건 호르라기부터 붙어댄다. 그리고 자기 통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멘붕에 빠진다. 그리고 끄떡하면 사회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이슈를 들먹이면서 방해한다. 만약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어쩔뻔 하였을까? 다행히 안식일이어서 주어서 ‘안식일 반칙금지’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버젓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멀었다. 그는 맹인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완장의 폐해다. 가문의식 때문에 오래도록 폐해가 쌓이면 가문적폐,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분적폐, 학벌적폐, 지역감정 적폐, 정치적폐, 주사파적폐, 노조적폐, 율법주의 적폐, 규제공화국적폐 등... 오늘날에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적폐는 많다.

자, 문제는 안식일을 어긴 메시야가 아닌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가 진짜 맹인이었을까라는 합리적인(?자기에게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맹인의 부모를 수소문하여 찾아갔다. 탐구정신 끝판왕이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낼 수 없어서 억지를 부렸다.

(비리를 끝까지 캐는 자들이다. 세월호는 특조위를 거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었고, 2017년에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2019년 4.16 드디어는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세월호와 관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45건이다. 이제 겨우 6년 지났는데, 10년은 더 우려먹을 것 같다.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다.)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비록 눈을 뜨게 했지만, 메시야는 아니고,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고쳐 주셨으니 하

나님께 영광은 돌리도록하라.

맹인의 의문.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나?’

하나님은 경건한자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떴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맞는데???’ 맹인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당사자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급 정죄모드로 돌립하였다. 그들은 ‘감히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맹인이 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들다니 무엄하다’고 소리 질렀다.

이 맹인이 보통 맹인이 아니다. 맹인이었지만,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당당함이 엿보인다. (그 부모와는 확연히 다른 포스가 있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은 맹인을 찾아갔다. 그가 기특 하셨을 것이고, 그가 심란해 하고 있을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공감능력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의심하고 누더기 짜깁기 결론을 내리는 바리새인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지만, 핏박받고 괘시 받고 정죄 받은 맹인이었던 청년에게 찾아가셨다.

그리고 핵심을 물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메시아를 믿느냐는 뜻.

‘하나님께서 너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는 진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맹인인 채 그분을 만났지만, 그분은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그 청년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나는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러 왔다.’

사람마다 눈이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가? 그러나 그 눈 때문에 정작 보지 못하는 폐단이 생긴다. 왜냐면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자기 경험과 판단과 결론 때문에 괴상망측한 엉터리 잣대가 마음속에 만들어진다.

세월호 유족의 잣대, 해양경찰청의 잣대, 해수부의 잣대, 해군의 잣대, 청와대의 잣대, 민주당의 잣대, 한나라당의 잣대, 특조위의 잣대가 모두 다르다. 그러니 몇십년 걸려도 결론은 나지 않는다. 눈으로 봐도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니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죄고 저주이다.

####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자신의 잣대가 없는 맹인의 눈이 복된 눈입니다. 이제 나 스스로의 잣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소서. 아멘.





## 〈찬양예배〉

제목 : 경건의 기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 Tag: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한 감각, 기도하고, 누리라)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믿음의)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간증)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신앙고백)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판과 구원)시니라 (살전 1:1-10)

